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3일 월요일 음 6월 14일 (6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26℃, 낮 최고 기온은 29~33℃의 분포를 보이겠다. 밤 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20%
30%	성 산	20%
30%	고 산	0%
30%	서귀포	30%

해뜸 05:48 / 해짐 19:32		달뜸 19:33 / 달짐 04:57
물때	만조 10:12 / 23:21	간조 05:09 / 16:51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26/33℃
모레	흐림	27/33℃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경고	매우높음

월드뉴스

트럼프에 찍힌 틱톡, 탈 중국 난항

미국 내 사업 MS에 매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사용 금지를 천명한 중국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TikTok)의 운명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틱톡이 미국 내 사업을 전면 매각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유력 인수 기업으로 거론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철수했다는 전언이 뒤따르는 등 전망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1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인터넷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전면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이후 백악관과 합의점을 찾고자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당초 MS와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협상을 벌이면서 소수지분을 유지하려 했다.

'틱톡'의 로고(왼쪽)와 트럼프 대통령.

그러나 백악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바이트댄스는 미국에서 철수하고 MS가 이를 인수하는 거래안을 새로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매각이 성사될 경우 앞으로 MS가 모든 미국인 이용자 정보를 보호할 책임을 안게 된다.

관계자는 MS 외 타 기업이 틱톡을 인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전했다.

또 일부 바이트댄스 투자자들에게 틱톡의 지분 일부를 확보할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고도 전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 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윤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포스트 코로나'보다 우선인 정기인사

백 금 탁
정치부장

'포스트 코로나'는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를 가로지르는 도로 한가운데 위태롭게 서 있는 듯하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서로 바라보는 입장차가 이렇게 다르니 말이다.

의회는 특위를 구성해 적극 대처하려는 반면 위기 속에 처한 도민의 생존과 직결한 이번 사태를 총괄해야 할 도청은 한낱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방관자'의 자세다. 이들에겐 도민들의 고통이야 남의 일이고, 오는 19일 예정된 민선7기 후반기 정기인사 결과가 더 중요한 일인 듯 싶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경제 침체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이어지며 제주경제는 만신창이 신세다. 관광객이 줄며 제주의 전반적인 산업구조가 휘청이고 기업은 물론 가계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의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감지하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제주의 산업구조의 취약성 등 도민들이 걱정하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고민을 시작했다. 제주는 물론 전국 나아가 전 세계가 모두 힘든 환경 속에서 코로나19 이후의 대응을 선제적으로 한다면 도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반등의 'V'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어떤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정책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수장인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정을 등한시 한 채 대권도전에 몰두하며 중앙정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공직자들은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포스트 코로나와 연결된 것"이라며 대응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제주로 유입되는 사람들은 점차 줄고 있다. '제주 드림(Dream)'을 꿈꾸던 정착민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고 제주를 떠나고 있다. 제주에 대한 좋았던 인상보다는 어렵고 힘들었던 좋지 않았던 기억들을 함께 갖고 말이다.

제주의 매력은 점차 잃어가고 있다. 위기에 처할수록 제주의 매력은 무엇인지를 곱씹어 봐야 한다. 우리 모두는 '보전'과 '개발'의 양면성을 지닌 '시소게임'이 아니라 최소한의 개발 속에 청정제주를 보전하며 그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직관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제주도정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제주에는 이미 인공물이 과잉 상태다. 도로며 건축물이며 기반시설은 충분하다. 일부 개발론자들이 뜻을 같이하는 정치권과 맞물려 개발논리를 펼치며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다. 여기에는 공존·공생의 의미가 없다. 나 혼자, 내 주변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 사고만이 넘쳐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본과 원칙이다. 국민들이 행동으로 보여줬던 '촛불혁명'은 단순하게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정치의 신뢰성 회복에 대한 외침이었다.

원 도정의 하반기 정기인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인사 결과보다는 공직자로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길 바란다. 녹봉을 먹는 사람들이 선거나 인사 때마다 남의 자리를 기웃거린다면 반성해야 한다. 특히 이 급박한 시기에 공무원의 본분을 잊은 채 출세에만 관심을 둔다면 자신들의 가족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열린마당

공익직불 농업인 준수사항 이해·실천하자

이 승 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우리나라의 직불제도는 조건불리지역, FTA피해보전, 쌀소득보전, 밭농업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보전 및 가격지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이는 쌀 생산 중심의 운용으로 쌀 공급과잉,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 기능 미흡 등의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해소를 위해 모든 작물에 동일금액 지급,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환경·생태 관련 준수의무 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공익직불제도(20년)로 개편했다. '공익직불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환경, 생태, 경관, 문화 등의 보전 및 유지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 보호(화학비료 사용기준,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 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지하수 이용기준), 생태계 보전(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공동체 활성화(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먹거리 안전(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 기준,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 안전성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영농활동 준수(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등 5개 분야(17개 항목)를 준수토록 의무화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액의 10%를 감액, 동일 항목을 반복·이행하지 않으면 100%까지 감액된다.

단, 공익직불제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마을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항목은 2020년(주의장), 2022년(5%), 2024년(10%) 단계적으로 적용 한다.

농업인 스스로 공익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급대원 폭행근절과 '일반예방주의'

고 현 석
도소방안전본부 홍보기획팀

최근 전북 익산에서 여성소방대원이 구급차량 내에서 주취자의 이유 없는 폭력으로 생명을 잃는 사건이 있었다.

제주지역에서도 각종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종종 있으며, 올 3월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가해자를 이송 중 소방대원 폭행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7월 29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32건이 발생했고, 그 중 징역형은 18명 중 17명이 집행유예 선고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구급대원 폭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도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폭행사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

일각에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중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형벌의 목적에 '일반예방주의'라는 것이 있다

형벌을 사회에 대한 위하적 작용으로 이해해 형벌의 목적이 일반인(잠재적 범죄자)들에 대한 위하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하는 이론을 말한다. 즉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저지르면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해 두려움을 갖도록 함으로써 널리 사회일반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구급대원 폭행사건 시 충분히 고려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어려움에 처한 불특정 다수에게 도움을 주러 출동하는 소방대원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 일반예방주의 형벌이론에 입각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엄정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소방공무원이 구급현장에서 폭행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민에게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지역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3년생
감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혜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유라실생 3,4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2021년 식재용 예약
• 유라조생 1년생
• 카라향 1,3년생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 천혜향 (무독) 2,3년생
• 궁천 1,2,5년생
• 궁천 변이지 1,2년생
• 하례조생 1,2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